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5년

야생 동·식물 4천여종 서식 '생명의 숲'

면적 2.5배 늘어…담비·삵 등 멸종위기 동·식물 23종

탐방객 올 2천만명 돌파 눈앞…4일 5주년 기념행사 풍성

무등산이 지난 2013년 3월 4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면적이 2.5배나 넓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공원 승격 이후 5년,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무등산에 터를 잡은 야생생물도 약 1.74배나 늘었다.

지난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의 무등산 자연자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까지 4012종 생물자원의 무등산 서식을 확인했다.

◇**동물 1826종 서식**=도립공원 당시 야생생물 서식종이 2296종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했다. 전체 야생생물 가운데 동물이 1826종으로 가장 많다. 식물은 1817종, 균류 등 기타 369종이다. 동물은 곤충류 등 무척추동물 1619종, 조류 127종, 포유류 27종, 어류 25종, 파충류 15종, 양서류 13종 순으로 발견됐다.

무등산에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모두 25종이다. 도립공원 당시에는 10종이었다.

1급 멸종위기종으로는 수달과 상제나비 등 2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담비, 삵, 하늘다람쥐, 독수리, 새매, 쌍꼬리부전나비, 구렁이, 산작약 등 2급 멸종위기 동·식물은 모두 23종이 서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도립공원 당시 9종에서 현재 13종으로 늘었다. 팔색조(204호), 올빼미(324-1호), 수리부엉이(324-2호), 소쩍새(324-6호) 등 4종이 추가로 확인했다.

국립공원 승격 이후 무등산 전체면적은 30㎢에서 75㎢로 약 2.5배 증가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용도지구별 면적은 공원자연환경지구가 84%인 63㎢로 가장 넓다. 공원자연보존지구 10㎢, 공원마을지구 1㎢, 공원문화유산지구 0.7㎢, 공원집단시설지구 0.3㎢ 등이다.

◇**탐방객 2000만명…불법행위 여전**=2013년 3월 국립공원 승격 이후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 수는 올해 2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간 350만명 이상이 꾸준히 무등산을 찾았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무등산 탐방객 수는 1848만1777명이다.

누적 탐방객 1천만명은 2015년 돌파했다. 해마다 350만명을 웃돈 탐방객 추세를 미뤄볼 때 151만여명 남겨둔 2천만명 돌파는 올해 이뤄질 전망이다.

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감소했지만, 불법행위는 공원사무소 측 단속 강화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은 2013년 68.03t, 이듬해 61.65t, 2015년 23.71t, 2016년 17.24t, 지난해 16.52t이다.

그린포인트제도에 참여한 탐방객이 수거한 쓰레기양은 2013년 0.83t, 2014년 1.56t, 2015년 2.16t, 2016년 3.30t, 지난해 5.35t으로 집계됐다.

◇**군부대 주둔지 복원 등은 과제**=정상부 방공포대 주둔지역 복원과 원효사 집단시설 이전은 2020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 과제로 수립했다.

무등산 정상에는 1966년부터 군 방공포대가 주둔하고 있다. 탐방객 접근 제한과 환경훼손 문제 등으로 부대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군부대 이전사업의 재원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지난해 11월 이뤄져 광주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이전 후보지로 언급된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1983년부터 원효사 계곡(해발 370m) 일원에 자리 잡은 집단시설지구는 낡은 상가와 오·폐수 등으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가와 식당 등 원효사 계곡 일대 집단시설을 북구 충효동 일대 약 25만㎡에 338억원을 들여 2020년 말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5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내달 4일을 전후해 증심지구 잔디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그린피크닉 음악토크콘서트, 시낭송회, 돗자리 문화콘서트, 환경미술제 등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가족 단위 탐방객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행사를 위주로 출연진과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동심의 강강술래 지난달 28일 광주시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열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강강술래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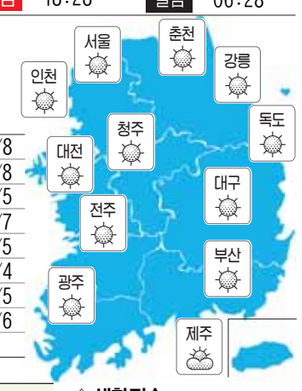
해뜸	07:03	달뜸	17:38
해짐	18:28	달짐	06:28

비 개인 오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안가 바람 세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4/7	보 성	맑음	2/8
목 포	맑음	4/6	순 천	맑음	5/8
여 수	맑음	5/10	영 광	맑음	3/5
나 주	맑음	2/7	진 도	맑음	5/7
완 도	맑음	5/10	전 주	맑음	4/5
구 례	맑음	3/6	군 산	맑음	3/4
강 진	맑음	3/7	남 원	맑음	3/5
해 남	맑음	3/8	흑산도	맑음	4/6
장 성	맑음	2/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	북서~북	2.0~3.0
	먼바다	서~북서	3.0~4.0	북서~북	2.0~4.0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	북서~북	1.0~2.5
	먼바다(동)	서~북서	3.0~5.0	북서~북	2.0~4.0
	먼바다(서)	서~북서	3.0~5.0	북서~북	2.0~4.0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46	01:19
	19:22	14:04
여수	02:26	08:57
	14:59	21:10

◇ **주간 날씨**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3/11	2/16	8/15	6/10	1/12	1/10	1/9

광주·전남 최고 66.5㎜ 단비

여수 초도 66.5㎜·광주 9.3㎜…오후부터 맑아져

지난 28일 광주와 전남 전역에 최고 66.5㎜의 단비가 내려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적셨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에 내린 강수량은 초도 66.5㎜, 거문도 58.5㎜, 완도 42.1㎜, 여수 28.3㎜, 광양 23.5㎜ 해남 21.1㎜, 목포 17.2㎜, 광주 9.3㎜, 나주 9㎜ 등이다.

광주·전남은 이달 들어 강수량이 평년(27.7㎜)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극심한 겨울 가뭄을 겪어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맑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모든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물결이 높아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대 광주·여수 캠퍼스 학과 통폐합 일방 추진 논란

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여수 해양토목공학과 광주로 일원화

전남대학교가 일방적으로 학과 통·폐합을 추진해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전남대에 따르면 국립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2005년 여수대와 통합을 한 이후 유사학과 통·폐합 차원에서 광주캠퍼스 토목공학과와 여수캠퍼스 해양토목공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대는 오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교육부에 정원조정 계획을 제출하고 2020년까지 통·폐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대는 1일 자로 여수캠퍼스 교수 2명의 소속 변경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교수 소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캠퍼스의 해양토목공학과를 폐과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광주캠퍼스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캠퍼스에는 교수 4명에 학생 170여여명, 여수캠퍼스에는 교수 11명에 학생 120여 명이 있다.

교수를 비롯해 동문과 재학생 등 학과 구성원들은 대학측이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했다고 지적한다.

일부 교수는 "학교 통합 당시 광주캠퍼스는 육상토목 분야에, 여수캠퍼스는 해양토목 분야에 각각 중점을 두고 상호 발전하는 것을 통합 학교의 발전 전략으로 삼았다"며 "그런데 본부에서 여수캠퍼스 교수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교수 소속 변경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이 현실화되면 여수캠퍼스 해양토목공학과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여수 지역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두 학교 통합 이후 학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유사학과의 통폐합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공문으로 학과와 대학의 의견을 물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실사학' 불명예 남기고…서남대 폐교

27년만에 역사속으로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부실사학의 대명사가 됐던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지난 28일 문을 닫았다.

1991년 3월 문을 연 지 27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서남대는 수학과 등 이학계열 5개 학과와 전자공학과 등 공학계열 5개 학과로 출범한 농촌의 작은 대학이었지만 1995년 50명 정원의 의예과가 신설되며 주목을 받았다.

순항하는 듯했던 서남대는 1997년 설립자인 이홍하 전 서남학원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먹구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에는 교육부의 특별감사에서 이 이사장의 교비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학위를 준 의대생 134명의 학위가 취소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 이사장의 교비 횡령액은 서남대 등록금 330억원을 포함해 무려 1천억원대에 달했다. 그러는 사이 서남대는 2011년부터 5년 연속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